

시론



김 선 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새해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달력은 한 장 넘어가지만 삶은 단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아마도 새해란 시간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묻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계획보다 문장을 먼저 떠올린다 한 해를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삶의 방향과 깊이를 은근히 좌우한다.

삶은 거대한 목표보다 매일 반복되는 언어로 이뤄진다. 오늘을 어떤 말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표정이 달라진다. 새해의 첫 문장은 선언이라기보다 기준에 가깝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약속보다, 어떤 태도로 살겠다는 다짐이 오래간다. 첫 문장이 흔들리면 그 뒤의 문장들도 쉽게 길을 잃기 쉽다 시작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다.

첫 문장은 반드시 화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단순한 문장이 오래 버틴다. “외면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같은 말이 그렇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언어는 곧 우

새해, 우리는 어떤 언어로 시작할 것인가

리가 살아갈 세계의 크기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삶의 결도 쉽게 닳아간다.

돌이켜보면 내 삶에서 유난히 공허했던 시간들은 남의 문장을 빌려 살던 시기였다. 시대의 구호와 사회의 언어를 그대로 옮겨 적으며 안도했다. 그러나 그 문장들에는 내 호흡이 없었다. 말은 많았지만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없었다. 새해는 그런 문장들과 조용히 결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새해의 첫 문장은 질문에서 시작될 때 깊어진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질문 없는 다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신에게 던지는 솔직한 질문 하나가 거창한 계획보다 한 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역시 해마다 첫 문장을 고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장과 효율이라는 언어에 기대어 왔지 않는가. 그 문장들이 성과를 낳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을 문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존엄과 돌봄, 공존 같은 말들이 문장의 중심에 놓여야 할 때다.

광주의 시간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왔다.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문장, 기억을 지우지 않았던 문장이다. 이 도시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언어를 선택해 왔다. 새해의 첫 문장은 그 문장과 단절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품은 시작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자신의 삶에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운명을 사랑한다.” 새해의 첫 문장은 바로 그 ‘예’를 연습하는 말이다.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겠다는 태도다. 시작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끌어안은 문장이 우리를 앞으로 보낸다.

요즘 나는 성공보다 지속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떠올린다. 한 번의 성취보다 오래 지켜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루를 견디게 하는 말, 타인의 고통 앞에서 멈추게 하는 문장이 결국 삶을 바꾼다. 그런 문장들은 대개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한 문장만이 오래 남는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달력이 바뀌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를 다시 선택하는 일이며, 삶의 결을 다시 만지는 일이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문장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생각은 단순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질수록 삶은 쉽게 상처를 남긴다.

이제 나는 한 해의 첫 문장을 마음속에 조금 더 천천히 적어본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문장, 외면하지 않겠다는 문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묵할 줄 알겠다는 문장이다. 그 문장이 한 해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다. 삶은 언제나 수정과 덧쓰기를 허락하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여백을 건넌다. 중요한 것은 다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 일이다. 오늘의 문장이 내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문장을 고려했던 태도는 남는다. 시간은 지금도 조용히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다.

기고



조 영 인
조인애드컴·조인출판사 대표

필자는 지난 7년간 ‘활자’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생을 기록해왔다.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구술을 채록하고, 장롱 깊숙한 곳의 빛바랜 사진을 모아 자서전을 펴내는 일이었다. 투박한 손으로 당신의 책을 받아 들고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나는 종이책이 가진 묵직한 힘을 믿었다. 텍스트는 영원하고, 기록은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 기록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담양군 주무관님의 제안 때문이었다. “대표님, 지금부터는 책 대신 생생한 영상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담고 싶습니다.” 7년 동안 이어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예산문제도 있고 쉽지 않았지만,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펜 대신 카메라를 들자, 글로는 미처 다 담아낼 수 없었던 ‘떨림’과 ‘눈빛’이 보이기 시

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삶은 한 편의 영화가 된다

작했기 때문이다.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들고 어르신들을 마주하면, 활자로는 전해지지 않던 감정의 결이 부파인터를 통해 고스란히 들어온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풍경과 친구들을 묘사할 때 입가에 번지는 개구쟁이 같은 미소,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수줍어하는 눈빛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나, “다시 젊을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 앞에 잠시 허공을 응시하는 그 침묵의 시간조차 영상은 놓치지 않고 기록한다.

나는 이 7·8분짜리 ‘부부 영상 자서전’이 단순한 군청의 아카이브(자료 보관) 용도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영상을 제작하며 한 가지 확고한 바람이 생겼다. 바로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의식에 쓰이는 것이다.

우리의 장례 문화를 떠올려 보자. 국화꽃 향기 속에 영정 사진 속 고인은 말이 없고, 조문객들은 슬픔 혹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며 밥을 먹는다. 그런데 만약, 빈소의 스크린에서 고인의 생전 영상이 ‘쇼츠(Shorts)’처럼 상영된다면 어떨까?

딱딱하게 굳은 증명사진 대신,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 너무 슬퍼들 말아라”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고인의 육성이 울려 퍼진다면, 그 장례식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육성으로 듣는 순간, 장례식장은 단절과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회상과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이어지는 과정이다.

담양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변화와, 삶의 지혜가 담긴 이 영상 기록은 훗날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보가 될 것이다. 텍스트가 ‘팩트’를 기록한다면, 영상은 ‘존재’ 그 자체를 기록한다.

주무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 담양을 넘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위대한 위인전만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자신의 시대를 견뎌낸 우리 이웃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다큐멘터리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읽는’ 것을 넘어, ‘보고 듣고 느끼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훗날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상영될 영화는 어떤 장르인가. 그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우리는 슬픔 대신 존경의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거울을 외면한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언론 보도는 조직을 흔들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 담긴 ‘미(me)’의 모습이다.

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비로소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위환이리(以患爲利), 근심 속에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아이(I)는 내가 생각하는 나이고, 미(me)는 타인이 바라보는 나다. 조직 역시 내부의 자기평가와 외부의 시선 사이에는 적잖은 간극이 존재한다. 내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밝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는 말은 시사점이 크다. 그는 문제가 생길수록 보고가 줄어드는 조직의 속성을 지적하며, 나쁜 소식을 조기에 공유할수록 해결의

시간은 늘어나고 불신과 갈등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작은 문제를 덮어두다 더 큰 혼란을 겪는 공식사회의 고질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타산지석(他山石). 남의 잘못된 사례조차 스스로를 경고하는 데 쓰라는 교훈이다. 비 재는 집의 들보는 결국 썩는다.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면 그 대가는 조직 전체가 치르게 된다. 주민의 신뢰를 잃은 지방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가 말했는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에 귀 기울일 때 조직은 성숙해진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변화는 사람이 만든다. 이제 목포시는 ‘아이(I)’에 머무를 것인지, ‘미(m)’를 직시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미지근한 사랑의 온도답 더 올려 한파를 녹였으면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답이 미지근한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광주지역은 41억5천여만원을 모금, 81.1도를 가리키고 있다. 전남은 88억1천만원으로 72.9도를 기록 중이다. 수은주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른다.

광주는 개인 기부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었고 법인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개인 참여가 감소했지만 법인 기부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2025년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호우·산불 재해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강드라이브에도 경기 회복이 부진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나눔캠페인은 1월31일까지 2개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는 51억2천만원, 전남은 114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모금액은 4천5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온다. 다소 이른 전망일 수 있으나 낙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100도에 조기 달성했던 1년 전 분위기와 사뭇 다르단 것이다.

새해에도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고환율에 한파까지 겹쳐 밥상 차리기조차 부담이다. 한편으론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첫 거래일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식이 급등하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곳곳의 분쟁과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내수 반등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민생 위축 속에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다. 어느 해보다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겐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열매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목표치 도달이 불가능해 보인진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적정 이윤을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기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온도답 수은주는 더 올라야 한다. 주위의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주민 직접체감 농어촌 교통 불평등 조속 개선돼야

농어촌 정주여건의 열악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대중교통의 어려움도 직접 체감할 지표로 손꼽힌다. 청년들에게 오라면서 농기계보다 자가용을 먼저 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의 공개적 비판이 공감을 사는 이유다.

서 위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리(里) 단위마을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의 4.3%(6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평균 배차 간격은 60.3분이고, 특히 면(面) 단위는 88.5분에 달한다. 섬 주민들의 고통은 더한 편이다. 육지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선사 운영난으로 뱃길마저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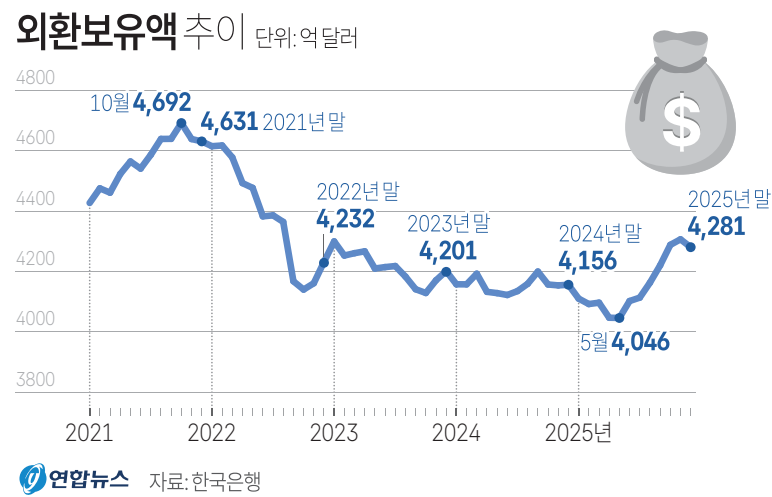
지방 소멸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일상 생활의 편의는 물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출근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을 지하철과 대비해보면 농어촌은 무려 20배 이상의 고충을 감내하고 있다.

청년 유입 및 귀농·귀촌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통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불평등 구조가 심각하다. 철저한 소외, 고립의 실상이 재확인됐다. 사각지대가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시골살이를 선택한 이주자들이 다시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어촌 및 섬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편안한 삶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여객선 환승체계도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 이동권은 기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청년 모시기와 귀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실천해야 하겠다. 대중교통의 명맥을 되살려야 하는 점까지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환율 변동성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80억5천만 달러(약 618조원)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

다가 이후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11억2천만달러)이 88억2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318억7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54억4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4천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6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594억달러)·스위스(1조588억달러)·러시아(7천346억달러)·인도(6천879억달러)·대만(5천988억달러)·독일(5천523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천637억달러)가 2·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목포시는 오랫동안 언론 보도 공유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긍정적인 가사는 비교적 폭넓게 공유되는 반면, 비판적이거나 불편한 가사는 주요 간부와 해당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선출직 시장 체제에서는 정치적 부담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현재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이런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공직사회에서 언론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취보는 거울이어야 한다.